

“與 선도탈당 몇명이나” 관심

염동연·이계안·임종석 등 최대 7~8명 거론 “20~30명 대열에 합류할 것” 전망 나뉘기도

염동연 의원의 탈당 선언을 계기로 열린우리당의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도 탈당’의 규모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도 탈당 의원의 규모가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명을 넘길 경우 내달 14일로 예정된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는 유명무실하게 되며 여당은 급속히 해체의 위기에 몰리기 때문이다. 일단 신당파 의원들 가운데서도 염 의원의 탈당 의사 표명에 대해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다수여서 당장 행

민하고 있다”며 탈당을 고려중임을 밝혔다. 선도 탈당 대열에는 염 의원과 이 의원 외에도 임종석, 김낙수, 정장선 의원 등 일부 수도권 초·계선 의원, 일부 호남권 의원 등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물꼬가 한 번 터지면 20~30명의 의원들이 곧바로 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호남권 의원들은 자신들이 앞장설 경우 ‘호남파’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일단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도탈당의 흐름이 잡히면 곧바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호남권 의원들까지 탈당 행령의 가세하면 탈당 의원의 규모는 40명 선을 쉽게 넘게 된다. 선도탈당의

시점은 사수와 당원들이 서울 남부지역에 낸 기간당원제 폐지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는 오는 11일 이후나 전당대회준비위에서의 논의 결과가 나오는 20일을 전후한 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낙수 의원은 “20일까지 전대의 제를 결정 못하면 한없이 끌려갈 수는 없으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양형일 의원은 “아직 당내 분위기가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지만, 11일 법원에서 심리 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20일까지 전대준비위에서 전대 성격과 의제에 대한 합의가 안되면 선도탈당이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고전, 정국구상 ‘長考’ 들어갔다

공식일정 안잡고 일주일째 해법찾기 모색 與 선도 탈당 주시하며 독자 신당론 검토

정해년 벽두부터 시작된 고전 전 국무총리의 정국 구상이 일주일째 접어들었다. 새해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한 고 전 총리는 지난 2일부터 사전에 약속된 언론사 신년 인터뷰를 제외하곤 공식일정을 일절 잡지 않고 있다. 고 전 총리는 8일에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탈라는 재경전북도민회의 요청도 고사한 채 정계개편 정국의 해법을 모색했다. 일단 고 전 총리는 여야 각 정파를 비롯해 정치권 바깥 세력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원탁회의’를 거쳐 오는 3~4월에 국민통합신당을 창당한다는 로드

맵을 꿰기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고 전 총리 주변에선 독자신당 창당론이 힘을 얻어 가는 분위기다. 우리당과 민주당 내 ‘친 고전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독자신당을 출범시킨 뒤 다시 통합신당을 목표로 향후 정계개편 정국을 주도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고 전 총리는 최근 염동연 의원 등 우리당 일각의 선도탈당 움직임을 정계개편 정국의 중대변수로 보고, 향후 대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총리의 한 측근은 “일단 해의체류 중인 염 의원이 귀국한 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염 의원의 의중을 파악할 것”이라며 “고 전 총리의 정국구상은 이번 주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민주, 전대 개최 합의

시기는 다음주 대표단회의서 결정



먼저 인사말 하시죠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주동지회 신년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게 인사말 순서를 양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대표단회의를 열어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으나 전당대회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추후 대표단회의를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8일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대표단 회의 결과, 전당대회 개최에는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는 이견이 있어 추후 대표단 회의를 다시 열고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는 취소됐으며 다음주 중에 다시 대표단회의를 개최해 이견을 조율할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중앙위원회는 오는 22일 이후에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김효석 의원 등 일부 현역의 의원들은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 열린우리당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계개편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최인기 의원 등은 전당대회 개최 및 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할 특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표단 회의에는 박광대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도 참석, 각기 전당대회와 정계개편에 대한 입장을 피력, 눈길을 끌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당파 이해타산 따라 움직이면 국민 동의 못받아 결국 실패할 것”

서갑원 의원 밝혀



의원들의 움직임과 관련 “부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해타산에 의해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는 신당을 만들면 국민이 절대 동의하지 못하고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 지도부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통합을 위한 단계적 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질서있는 대통합을 거부하고 탈당과 특정 세력 배제 등을 운운하는 것은 권 가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

“지난 1년은 최대 안보위기 DJ·노대통령이 책임져야”

YS 또 독설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8일 정치권 라이벌인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반여(反與) 세력 결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절대 동의하지 못하고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 지도부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통합을 위한 단계적 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질서있는 대통합을 거부하고 탈당과 특정 세력 배제 등을 운운하는 것은 권 가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

국가안보 위기상황”이라며 “이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은 바로 김대중과 노무현”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이 두 사람이 퍼다간 엄청난 돈으로 김정일이 핵심 힘을 한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를 핵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응서할 수 없는 반역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노 대통령을 겨냥해 “이 추운 날 눈보라 속에서 전방을 지키는 우리 자식들이 ‘군대에 서 싸고 있다’는 것이냐”며 “국군통수권자로서 도저히 해선 안될 비정사도 ‘정권 탈환’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그 입을 닫게 해달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연합뉴스

사립 교사 임용고시 특강

- 대상 : 중등교사<전과목>해당됨
- 시험과목 : 면접, 수업실기, 교과교육론
- 시험일시 : 1월과 2월사이에 약(5~7회) 불수있음

전남고시학원 상담전화 ☎(062)222-5105, 017-631-4467

전남여고맞은편 (광주 동부경찰서 뒤)

사립교사가 될수있는 최고의 기회

- 서울 공평학원과 광주·전남고시학원 동시에 강의함
- 개강 1월 14일 오후 2시

신입 및 경력직원(설계·감리) 모집

당사는 건축설계·종합감리·전기및소방설계감리업체로서 금번 신규사업기술용역 참여 등 사세확장과 더불어 21세기를 함께 할 신규 및 경력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서 및 자격

구분	분야	인원	해당공공사항 등
감리분야	•신규: 건축·토목	각 분야 0명	•신규: 설계, 시공, 감리경력 4년미만인 자 •경력: 감리사이상 전기-중급이상 •지역중소지자로서 최근 기술보수교육5일 이십자우대(전기감리는 즉시투입가능자)
	•경력: 건축·기계 토목·전기 소방·통신		
설계분야	•전기 및 소방분야 설계	0명	•전기 또는 소방분야 설계가능자로서 자격중소지자 우대

2. 제출서류 및 전형방법

- 가. 1차: 서류전형
- 나. 2차: 면접(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 다. 자필이력서(반영합판 사진부착 및 우측상단에 응시분야, 연락처, 희망연봉 필히 기재)
- 라. 경력확인서(감리:건설감리협회,건설기술인협회, 전기:전력기술인협회, 기타:해당경력기관)

3. 제출처 및 제출방법

- 가. 접수기간: 2007년 1월 10일부터 해당분야 인원 충족시(1월 31일까지)
- 나. 접수처: 우편번호:502-180 주소: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66-14(4층) 문의전화:062-382-7560 (주)지에이엔지니어링 총무담당자 FAX:062-382-7565
- 다. 접수방법: 우편접수 또는 FAX전송 및 본인 직접 접수 가능합니다.
- 라.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지에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GLOBAL ARCHITECTS & ENGINEERS CO., LTD.
[건축설계·종합감리·전기소방설계 및 감리업]

공 시 최 고	
<p>사건번호 신 청 인</p> <p>2006카공 221 류미선</p> <p>2006카공 282 박현경</p> <p>2006카공 288 천종국</p> <p>2006카공 290 김현환</p> <p>2006카공 300 이은중</p> <p>2006카공 301 유상배</p> <p>2006카공 302 남도희</p> <p>2006카공 303 황진연</p> <p>2006카공 306 조태원</p> <p>2006카공 308 조의선</p> <p>2006카공 311 장현이</p> <p>2006카공 312 김용규</p> <p>2006카공 314 김재수</p> <p>2006카공 317 옥수민</p> <p>2006카공 318 이성우</p> <p>2006카공 319 이은희</p>	<p>1)주소, 종류, 번호, 금액 2)발행일(지급일) 3)발행인(지급지)</p> <p>1)여수시 동백동 586-9 자기앞수표(다가86588587~9, 다가86588596) 각금500,000원(4매) 2)2005년 8월 31일 3)여천농협 석창지점</p> <p>1)사천시 벌리동 주공아파트 205-1506 자기앞수표(34339803, 34339805, 34339807~12, 34339814) 각금100,000원(9매) 2)2006년 6월 20일 3)국민은행 연안지점</p> <p>1)광양시 금호동 관린빌라 19-201 자기앞수표(64139550~1) 각금100,000원(2매) 2)2006년 5월 26일 3)국민은행 태안동지점</p> <p>1)광양시 대암면 고리리 494-2 자기앞수표(라카87663088~9) 각금1,000,000원(2매) 2)2006년 6월 7일 3)구례농협 토지자사(29797229~35) 각금1,000,000원(7매) 2)2006년 11월 24일 3)국민은행 연안지점</p> <p>1)순천시 대암동 376-28 자기앞수표(90363885~9) 각금100,000원(5매) 2)2006년 10월 27일 3)순천농협 순천지점</p> <p>1)순천시 대암동 376-28 자기앞수표(06153640) 금1,000,000원 2)2006년 11월 1일 3)외환은행 순천지점</p> <p>1)원주시 단계동 580 자기앞수표(32252783~5) 각금1,000,000원(3매) 2)2006년 11월 20일 3)순천농협합동중앙외서지점</p> <p>1)여수시 소호동 353 금호아파트 4-506 자기앞수표(라카86281920) 금1,000,000원 2)2005년 12월 15일 3)여수수협 여천지점</p> <p>1)여수시 근자동 414 아쿠아리움(00283264) 금3,000,000원 2)1999년 1월 6일 3)조외산(광주은행) 동북지점</p> <p>1)와수어촌(00283020) 금500,000원 2)1994년 1월 3일 3)조외산(광주은행) 동북지점</p> <p>1)담양수표(0077191) 금300,000원 2)1994년 1월 3일(1994년 1월 9일) 3)조외산(광주은행) 동북지점</p> <p>1)여수시 광무동 379-4(송림초·여수시 미평동 675-7 대성상사) 자기앞수표(가카81625415~9) 각금100,000원(5매) 2)2006년 11월 23일 3)우리은행 여수지점(여수)</p> <p>1)순천시 낙안면 관린리 145-1 자기앞수표(가카190166320~5) 각금100,000원(6매) (라카82239977~90) 각금1,000,000원(14매) 2)2006년 12월 6일 3)순천농협 낙안지점</p> <p>1)순천시 조계동 563 개계수표(50030626) 금300,000원 2)마가제 3)간재수(우리은행) 순천지점</p> <p>1)경남 함안군 가야읍 민산리 287-7 자기앞수표(라카82252490~519) 각금1,000,000원(30매) 2)2006년 9월 28일 3)순천농협 의서지점</p> <p>1)순천시 조계동 189-3 자기앞수표(라카54424190) 금1,000,000원 2)2006년 12월 6일 3)순천농협 해동지점</p> <p>1)여수시 소호동 주은금호아파트 308-605 자기앞수표(라카2318622) 금1,000,000원 2)2006년 12월 7일 3)신한은행 여천지점</p>
<p>사건번호 신 청 인</p> <p>2006카공 320 김동</p> <p>2006카공 321 진봉균</p> <p>2006카공 324 김희정</p> <p>2006카공 325 정동호</p> <p>2006카공 326 분순물</p> <p>2006카공 327 최학동</p> <p>2006카공 328 한인기</p> <p>2006카공 329 박문식</p> <p>2006카공 330 이정순</p>	<p>1)주소, 종류, 번호, 금액 2)발행일(지급일) 3)발행인(지급지)</p> <p>1)여수시 신기동 3 주공아파트 109-407 자기앞수표(가카101198738~42) 각금100,000원(5매) 2)2006년 12월 9일 3)광주은행 여천지점</p> <p>1)전남 고흥군 공산면 석령리 664-15 자기앞수표(52239294,52239298) 각금1,000,000원(2매) 2)2006년 12월 9일 3)계곡농협합동중앙 1)자기앞수표(35504710) 금1,000,000원 2)2006년 11월 23일 3)계곡농협합동중앙</p> <p>1)여수시 신기동 신화아파트 1-401 자기앞수표(가카04904089~04904098) 각금100,000원(10매) 2)2006년 11월 24일 3)여수신기동우체국</p> <p>1)서울 노원구 상계2동 1282 중앙하이츠아파트 209-1503 담좌수표(01869912) 금100,000원 2)1986년 12월 22일 담좌수표(03144547) 금100,000원 2)1988년 9월 9일 담좌수표(04428339) 금100,000원 2)1988년 12월 3일 담좌수표(04138105) 금100,000원 2)1990년 1월 3일 담좌수표(00999990) 금100,000원 2)1990년 5월 31일 담좌수표(01808339) 금100,000원 2)1990년 10월 26일 3)정동호(우리은행) 여수지점</p> <p>1)여수시 용현동 1025-1 자기앞수표(라카91252679) 금1,000,000원 2)2006년 9월 11일 3)여수수협 사쿠지점</p> <p>1)광양시 중동 1301-1 동풍아파트 301-702 자기앞수표(라카470051468~70051469) 각금1,000,000원(2매) 2)2006년 12월 8일 3)동수기업은행 순천중앙지점</p> <p>1)여수시 중흥동 1570 자기앞수표(다카89335747) 금500,000원 2)2006년 12월 15일 3)여수시(여수 농협합동중앙)</p> <p>1)여수시 남산동 8-2 자기앞수표(라카29273465, 라카29273466) 각금1,000,000원(2매) 2)2006년 12월 13일 3)국민은행여수서동지점(국민은행여수서동지점)</p> <p>1)순천시 광덕동 오선빌라 904호 자기앞수표(라카704205694, 라카704205840) 각금1,000,000원(2매) 자기앞수표(가카66644552~55, 가카66644557) 각금100,000원(5매) 2)2006년 12월 18일 3)순천농협합동중앙</p>

상기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7. 4. 18. 15: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사 구 광 현**